

Walking along the Borders

민주지산

삼도의 경계를 지나는 도전 산행

충북 영동에는 '민주지산'이란 특이한 이름의 산이 있다.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에 서 있는데, 특히 삼도봉은 경상북도까지 포함해 삼도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삼도봉-석기봉-민주지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산행은 삼도를 가장 단시간에 달는 경로이다.

사진 이진욱 기자 · 글 임동근 기자

민주지산 트레킹은 황룡사-삼도봉-석기봉-민주지산-황룡사로 이어지는 원점 회귀 코스가 일반적이다. 능선길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계를 따라 나 있다.



우선 '민주지산'이란 이름은 '민주(民主)'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민'자의 한자 표기도 일정치 않다. '보다 민(眠)', '산 이름 민(岷)', '옥돌 민(珉)'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예부터 지역민들이 산이 민둥민둥하다 해서 '민주름산'으로 불렀는데 일제강점기 때 한자로 옮겨 적으며 민주지산으로 바뀌었고, 한자 표기가 제각각이 된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여지도에는 이 산이 '백운산(白雲山)'으로 표시돼 있다. 한 때 산림청과 시민단체, 지명 전문가들이 왜색 이름을 버리고 백운산으로 바꾸자는 운동을 펼쳤지만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민주지산은 충북 영동, 전북 무주, 경북 김천이 만나는 곳이다. 위치로 볼 때 삼국시대엔 백제와 신라가 대립했던 장소임에 틀림없다. 실제 두 나라가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던 나제통문(羅濟通門)도 민주지산의 무주 쪽 발치에



민주지산 트레킹은 결코 쉽지 않다. 황룡사에서 삼도봉까지는 오르막이 계속되고, 삼도의 경계를 따라 진행되는 민주지산까지의 능선 구간도 오르내림이 심해 결코 녹록지 않다.

자리하고 있다.

민주지산(1,242m)은 삼도봉(1,178m), 석기봉(1,242m), 각호봉(1,202m)의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어 트레킹 코스가 다양하다. 한천주차장(황룡사)-삼도봉-석기봉-민주지산-한천주차장의 원점 순환 코스(7시간), 도마령-각호봉-민주지산-석기봉-삼도봉의 종주 코스(8시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민주지산-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코스(4~5시간) 등이 있다. 한천주차장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코스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종주를 하는 이들도 많다. 한천주차장에서 황룡사까지는 도로를 따라 5~10분 정도 걸으면 닿는다. 본격적인 산행은 황룡사에서 시작된다. 황룡사 오른쪽에 난 길을 따라 가면 물한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건너고, 이곳부터 물소리 시원스런 계곡을 따라 완만한 오르막을 걷게 된다.

황룡사 출발 20여 분 후 민주지산과 삼도봉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나오는데, 왼쪽 계곡길을 향해 가면 된다. 이후에도 삼거리 두 번 더 나타난다. 두 번째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석기봉과 민주지산 중간 능선에 닿고, 세 번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삼

도봉과 석기봉 사이의 능선으로 이어진다. 시간 계획과 체력에 맞춰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황룡사에서 삼도봉까지는 4.4km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경사가 완만하다고 빨리 오르면 지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삼거리를 지나고부터는 경사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오르막 계단도 나타난다. 삼도봉을 900m 남겨둔 삼마골재부터의 능선길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를 따라 나 있어 두 도의 산맥을 보며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삼도를 굽어볼 수 있는 삼도봉부터 4.3km 떨어진 민주지산까지는 도의 경계를 지나는 능선길이다. 그러나 쉽게 볼 것은 아니다. 능선이 완만하지 않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무척 힘들게 느껴진다. 특히 석기봉은 바위를 타고 넘어야 하는 험산이다. 바위에 고정시킨 밧줄을 붙잡고 이동하는 구간이 다섯 군데 있는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황룡사를 출발해 민주지산 정상까지는 8.7km로 5시간 정도 걸린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각호봉으로 이어지지만 대부분은 민주지산 바로 아래 쪽새골 갈림길에서 황룡사 방향으로 하산한다. 하산길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걸린다.

▶ 민주지산 트레킹 안내도



4 삼도봉은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만나는 지점이다. 정상에는 기념비가 서 있고 삼도에 펼쳐진 산들을 조망할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지리산도 볼 수 있다.



5 삼도봉에서 석기봉까지는 1.4km의 능선길이지만 오르내림이 심해 만만치 않다. 또 석기봉에서는 바위를 다섯 차례 타고 넘어야 한다. 삼도봉-석기봉 구간은 40분 정도 걸린다.



6 석기봉에서 민주지산까지는 2.9km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경계를 이루는 능선길을 따라 산행이 진행된다. 역시 오르내림이 심하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7 해발 1천242m인 민주지산의 정상에 서면 산의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민주지산에서 각호봉 방향으로 5분 정도 가면 허룻밤 묵을 무인대피소가 있다.



1 한천주차장에서 약 600m 떨어진 황룡사는 민주지산 트레킹의 출발점이다. 황룡사 오른쪽의 출렁다리를 건너 계곡을 따라 가면 완만한 등산로가 이어진다.



2 황룡사에서 약 800m를 오르면 첫 번째 삼거리가 나타난다. 민주지산만 오를 계획이라면 정상까지 3km 거리인 오른쪽 지름길로 가면 된다. 삼도봉으로 향하는 왼쪽 길을 선택하면 계곡과 수려한 폭포들을 볼 수 있다.



3 첫 번째 갈림길에서 2.7km 떨어진 삼마골재는 삼도봉을 900m 남겨둔 지점이다. 계곡을 따라 가다 삼산으로 진입하는데 경사가 조금 급해지고 오르막 계단이 나타난다.



8 민주지산에서 석기봉 방향으로 100여m를 내려오면 쪽새골 갈림길이다. 황룡사 원점 순환 코스를 타는 이들은 이곳에서 황룡사 방향으로 내려간다. 황룡사까지의 거리는 3.8km이다.



9 쪽새골 갈림길에서 황룡사 방향으로 가면 오를 때 보았던 첫 번째 갈림길로 이어진다. 이 길에는 바위와 자갈이 많아 걸기에 좋지 않다. 첫 번째 갈림길까지는 2.9km이다.



10 자갈이 많은 내리막은 이내 시원스런 계곡 옆길로 이어진다. 첫 번째 삼거리를 지나 황룡사까지는 경치가 수려한 잣나무 숲길이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해발 700m에서의 상쾌한 휴식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쾌적하다는 해발 700m에 자리하고 있다. 맑은 계수가 흐르는 계곡, 깨끗한 숙박 시설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길이 사계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는 계곡과 산이 이룬 수려한 풍경 속에 자리한 숲속의 집과 겨울철 이외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 갖춰져 있다.

- ▲ 취사장 ▲ 야영데크
- ▲ 목구멍 ▲ 화장실
- ▲ 그늘아래피막
- ▲ 물탱크 (세.소.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충북 최남단인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의 민주지산 자락에 위치한다. 심산 안쪽의 계곡에 있어 들어서자마자 도시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상쾌한 기운이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듯한 기분이 든다.

숙박 시설인 숲속의 집은 계곡과 숲속에 띄엄띄엄 자리하는데 모양과 구조가 제각각이다. 너와지붕 입식 구조의 너와집, 거실과 방, 다락방, 찜질방으로 구성된 황토방, 각기 다른 크기의 목조건물이 있다. 또 소규모 단체나 가족 휴양객을 위한 산림문화휴양관과 학습관이 있다. 숙박 시설에는 취사 시설과 도구, TV, 냉장고, 전열기 등이 갖춰져 있고, 욕실에는 수건과 비누가 비치돼 있다. 온수는 물탱크에 담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1~2명이 샤워를 한 후에는 데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야영 데크는 겨울철 이외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데 휴양림 안쪽에 마련돼 있다. 데크의 크기는 2.5x2.5m이며, 총 39개가 계곡 주변과 비탈에 배치돼 있다. 취사장에서 가까운 데크는 21~23번, 30~33번이고, 비교적 한적하고 조용한 데크는 비탈에 배치된 34~39번이다. 1~20번 데크는 간격이 좁아 조용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휴양림에는 숙박 시설과 야영장 이외에도 휴양림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비롯해 운치 있는 등나무 터널 아래 조성된 길이 240m의 맨발 숲길, 물놀이장, 장승공원, 잔디광장 등이 자리해 방문객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한편 휴양림에는 '치유의 숲길'이 조성돼 있다. 하늘길, 오감치유길, 명상치유길, 운동치유길 등 숲속을 거닐며 명상을 하고 풍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민주지산 치유센터에서는 의료진의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동과 목공예, 음악,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 치유동이 있다.

숙박료와 입장료는 시설에 따라 다르다. 야영 데크는 5천 원이며, 입장료(성인 1천 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300원)와 주차료 3천 원(대형 5천 원)은 별도로 내야 한다.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투숙 요금은 비수기 2만5천~10만 원, 성수기 4만5천~20만 원이다. Y

STAY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의 숙박 시설은 계곡이나 숲속에 띄엄띄엄 자리하는데 모양과 구조가 제각각이다. 내부에는 취사 시설과 도구, TV, 냉장고, 전열기 등이 갖춰져 있고, 욕실에는 수건과 비누가 비치돼 있다.

TIP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시내버스가 영동역에서 1일 4회(06:30, 10:20, 13:20, 17:20) 운행하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가기 위해서는 조동리 정류소에서 내려야 한다. 성수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토요일과 공휴일도 성수기 요금이 적용된다. 입실 시간은 오후 2시이며 퇴실은 다음날 정오이다.



예약과 문의
043-740-3437-8
www.cbhuyang.go.kr/minjoojisan